

전남

전남 수산물 생산량 전국 최고

지난해 102만t 1조7449억... 2위 경남의 2배

미역·김·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 작황 증가

지난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은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국 1위의 수산도임을 증명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물품부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전남 수산물 생산량은 102만8000t에 1조7449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생산량은 4.4%(4만3000t), 금액으로는 10.2%(1607억원)가 늘었다.

이는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대비 32.9%, 생산금액으로는 23.5%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수산물

생산은 312만6000t에 7조413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4만9000t이 감소했으며 금액은 532억원이 늘었다.

특히 수산물 가운데 양식 생산량도 전남이 85만7000t으로 전국 생산량의 61.6%를 차지했다.

전남의 이같은 수산물 생산량은 2위인 경남(59만2000t)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규모로 전국 1위의 수산도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해조류 양식 작황이 양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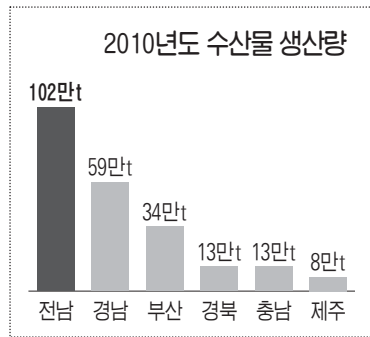
미역은 28만9000t에서 36만5000t으로 7만6000t이, 김은 12만8000t에서 15만4000t으로 2만6000t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미역이 36만5000t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다시마류 24만, 김 15만4000t, 멸치류 4만3000t, 톳 2만2000t 등의 순이다.

생산 금액별로는 전북류 2249억원, 넙치류 1949억원, 김 1634억원, 뽕장어 1212억원, 멸치류 935억원의 순이다.

품목별 전국 점유율은 전북 97%, 김 66%, 미역 89%, 다시마 96%, 톳 92%, 뽕장어 60%, 낙지 64%, 적새우 84% 등이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수산물 생산량의 83%를 차지



하는 양식어업의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수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패류 양식도 고막 등 자연채도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조도 생산기술 개발보급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만에 날아든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겨울철새 1000여마리 관찰

세계 최대 월동지 유지 지속 관리 필요

순천만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에 처한 '검은머리갈매기'의 최대 월동지로 밝혀졌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1월 순천만에서 진행된 '전국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를 통해 1088마리가 월동하는게 확인됐고, 2월 한일 국제 공동조사에서 1000여 마리가 관찰됐다.

한국과 일본의 검은머리갈매기 공동조사 연구팀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순천만 등에서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월동 서식 형태를 조사했다.

'검은머리갈매기'는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번식한뒤 한국과 일본, 중국 남부, 베트남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종으로 번식지와 월동지가 모두 해안 지역이다. 여름 번식철에는 검은머리이나 겨울에는 흰색으로 바뀐다.

조사팀에 따르면 순천만에서 발견된 '검은머리갈매기' 수는 전세계 생존 개체수의 12%가량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오자키

키요야키 박사(일본 야마시나조류 연구소 부소장)와 이기섭 박사(한국 물새네트워크 대표)는 "순천만의 염습지가 잘 보존돼 강하구 생태계 조건과 갯벌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동하게 좋아 많은 개체수의 검은머리갈매기가 월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최대 월동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순천만에 조성된 내륙습지는 10만여㎡ 규모로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 고니를 비롯한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영광군의회, 조례개정 활발 '일하는 의회'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운·사진)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 176회 임시회를 열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함께 조례 제·개정 9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으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총 6건의 자치법규가 의결됨으로 이뤄져 '연구하고, 공부하는' 달라진 의원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새해 주요업

무계획 보고와 청취에서도 군정시책에 따른 타월한 대안을 제시해 군의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후문이다.

양순자 의원 외 2명이 발의 제정한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경우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종운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협력 관계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찾아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올 함평나비축제 주인공입니다. 함평군은 오는 4월 29~5월 10일 열리는 '제13회 함평나비축제'의 주인공 나비로 '네발나비'를 선정했다. 네발나비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며 겨울에도 성충으로 월동한다. <함평군 제공>

순천보호관찰소 '1사1촌' 결연 봉사활동 나서

순천보호관찰소(소장 박성기)는 고령화와 구제역, 수입 농산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을 돕기 위해 23일 별관면 장학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결연식에는 순천보호관찰소장과 별관조합장, 마을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대사자를 적극 투입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홀몸노인을 돌보는 생활가사서비스, 농촌봉사 등 아름다운 내고장 만들기 계획인 '3미(美) 활동(채우미, 돌보미, 지키미)을 실천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들 주거지에 도배와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순천과 여수에서 지난 2004년부터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어려운 지역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사랑 봉사단'을 운영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기 순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1사1촌 결연을 계기로 농산물 구매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직원 및 사회봉사자를 투입해 각종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영광·전주에 가공용 원료미 생산단지 조성

농진청 육성 벼 '보람찬' 활용

농진청육성은 초다수성 벼 품종인 '보람찬'을 활용해 영광과 전주에 가공용 원료미 전용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용단지는 영광군에는 모시앞송편 원료용으로 20ha, 전주시에서 쌀빵과 쌀과자용으로 5ha 규모로 조성된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농진청이 육성한 '보람찬'은 수량이 10a당 수확량이 733kg에 달하는 초다수성 품종으로 도정했을 때 완전미 비율도 높으며 제빵이나 떡 제조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쌀치즈케이크 등 쌀빵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 중이며 카스텔라 등 다양한 쌀가공 제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수자원공사 원활한 수돗물 공급·무사고 기원제



농어촌소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는 23일 주안댐 정제터널에서 이석천 본부장과 실무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무사고와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바라는 안전 기원제를 지냈다.

주안댐 물을 타지역으로 연결하는 정제터널(지름 2.8m·길이 7.8km)은 기존에 중력에 의해 물이 흐르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터널 출구쪽에 전동밸브를 장착해 통수와 담수가 가능한 조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석천 전남지역본부장은 "정제터널 공사를 통해 광주, 화순, 나주, 목포 지역은 수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 비상공급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형운)는 지난 22~23일 광산구 진성저수지와 광산간선에서 지역농업인 및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광주지사는 매달 '영농지원단 및 환경정화의 날'을 정해 지역주민, 자매결연단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주변 준설 ▲잡목제거 ▲시설물 점검 ▲쓰레기 수거 ▲수질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형운 지사장은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원 조사, 환경정화 및 영농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토지 매매' (land sale) and '주택 매매' (house sale).